

지역 매 아리

부안군, 가력항 풍어제 성료

부안지역 어업인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15회 가력항 풍어제가 지난 16일 부안군 변산면 가력선착장에서 열렸다.

올해 15회를 맞는 가력항 풍어제는 가력항어민협회가 주관하고 전북도,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풍어제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부안수협 관계자와 어업인단체, 지역어업인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뱃고사, 오뎅이 게임, 주민화합행사 등으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가력항 풍어제는 매년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개최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을 대표하는 어업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력항어민협회 관계자는 "가력항 확장공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두 손 들어 환영하고 가력선착장의 조속한 확장공사 추진과 국가어항 지정 등을 요청한다"며 "이번 풍어제를 통해 어업인의 안전조업과 민선 등 좋은 일만 가득한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오는 28일부터 28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예산 4억 8200만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 조기폐차 300여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5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 폐차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신청 접수 마감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어야 한다.

대상차량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6)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조기폐차 후 신차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1대당 400만원씩 총 5대 차량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200만 고창도민의 대화합의 장

군, 도민체전 개·폐회식 연출계획 보고회 열려

제56회 전북도민체전을 80여일 남겨둔 가운데 고창군이 개막식 연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지난 15일 군청 5층 회의실에서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개·폐회식 및 성화 봉송 연출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고창군에서 역대 3번째 열리는 도민체전의 하이라이트인 개·폐회식 연출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 슬로건은 '치솟는 기동 고창을 받치다! 정복을 세우다!'로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역사와 자연, 예술을 망라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있다. 사진 행사로는 고창관소리 공연, 추억의 대운동회, VR드로잉 퍼포먼스 등이 제안·검토됐다.

대회기간 중 고창을 밝힐 성화 채취는 5월 9일 고창읍 도산리 고인돌

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관계자는 "역대 어느 대회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던 한반도 첫 수도에 걸맞은 성화채취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역대 체전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됐다"며 "이번 대회가 200만 도민의 대화합의 장과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내일 정읍체육관에서 '정읍청년 취업 박람회'가 열린다.

정읍시, 내일 연지동 체육관에서 청년 취업 박람회 개최

26개 기업 참여... 80여명 채용

내일 정읍체육관에서 '정읍청년 취업 박람회'가 열린다.

박람회에는 지역 내 26개 기업과 단체 등이 참여해 모두 80명의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 행안부가 주관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모두 95개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돼 국비 7억원 포함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고용을 전제로 하는 1유형(정착 지원형)과 창업 관련 2유형, 민간취업 연계형(최대 10개월 간 인턴십 기회 제공)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1유형과 3유형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을 선발할 계획이고, 창업 관련 2유형은 이후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박람회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는 농산물 생산유통 농업회사법인,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기업, 바이오가스 플랜트기업, 마을기업, 공동체활성화센터, 정읍문화원, 정읍산림조합, 청년경제연구소, 울림야학교 등이다.

1유형에 선발된 청년들은 농업법인과 마을기업 등에 고용을 전제로 채용되고 3유형 선발된 이들은 지역사 회서비스 분야에서 최대 10개월 간

인턴십 기회를 갖게 된다. 취업 청년들에게는 평균 187만원~200만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결과는 22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선발된 청년과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28일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이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달 4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취업 박람회 관련 공고문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 자선 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민 참여로 안전문화 확산 기대

정읍시, 국가안전대진단 발대식 가져

정읍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 국가안전대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민·관 합동점검 기동반, 유관기관, 안전관련 민간단체와 담당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안전관리 현장 낭독, 대진단 추진계획 설명, 재난의 이해 및 안전관리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 간 실시된다. 시는 기간 내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험시설, 최근 사고 발생 시설, 국민 관심 분야·위험성이 높은 건축물·시설물 등 400여 개소를 선정해 중앙·지방·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5일 안전관리관협력위원회 심의회에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안전대진단 대상을 선정했다.

또 심의회에서는 점검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와 안전 단체의 안전점검 참여를 강화하고,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 자율점검 확대 등 국가안전대진단 전 과정(계획 수립, 점검, 후속조치)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진섭 시장은 "위험시설 등에 대한 집중 합동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내 집과 내 점포는 스스로 점검하고, 생활속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위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고창군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검사와 위험시설에 대한 중점점검을 진행한다.

재난안전과, 건설도시과, 생태환경과, 문화유산관광과 등 11개 소관부서가 참여한 이번 대진단에선 급경사지, 교량, 생활형 숙박시설, 문화재 등 290개소에 대해 중점 점검이 이뤄진다.

또 전기·가스·승강기 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고창군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

기동반과 합동점검도 진행된다.

특히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생활주변 위험 요소들을 찾아 공유·해결하는 안전문화 운동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군은 정토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지역안전대진단 추진단'을 구성하고, 15일 부서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고창군 정토진 부군수는 "안전신문고 제보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완벽한 점검과 정확한 진단을 통해 100년 안전 고창 실현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읍면 연초방문 '이청득심' 성료

권익현 부안군수가 18일 위도면을 마지막으로 2019년 연초방문 '이청득심'을 모두 마쳤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달 14일 동진면을 시작으로 하루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군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행정을 펼쳤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연초방문을 통해 "2019년은 민선7기 부안군정이 새로운 부안 실현을 위한 성장동력을 찾고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야할 시기"라며 "변화에 대응하고 새롭게 창조한다"는 '응변창신'의 자세로 군민 행복과 부안군 발전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 연초방문은 군민과의 생동대화를 통해 권익현 군수가 직접 군민에게 국정방향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 지역발전방안과 현안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부안군은 주민과 대화를 통해 마을 안길정비, 배수 등 농업기반시설 및 하수도 정비, 마을축제 활성화 등 모두 207건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받았으며 주민 수혜도, 사업 필요성 및 군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featuring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with various gift set prices and descriptions.